



# 도시관리계획 두고 행정-시민단체 갈등

### 제주참여환경연대 “보전지역, 생산지역으로 둔갑” 제주시 “축척도 차이... 소규모 단절 부지 정형화”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둘러싸고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영터리 자료로 심의가 이뤄졌으며 원전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제주시는 축척도의 차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시민단체는 시가 보전지역을 좁게 하기 위해 대축척 입상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에 시는 또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재차 논란을 정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사실상 범죄 실토”라며 “제주시는 시 도시계획과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연대는 교육문화카페 자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신청안을 토대로 입상도와 식생보전 등급을 조사해본 결과,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한다던 곳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했다”면서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연대가 근거자료로 활용한 입상도 도면은 대축척(1:25000) 자료이다”며 “시는 소축척도면을 활용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입상도 5등급, 식생보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존치했다”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결정으로 청했다. 다만, 관리지역은 최소 3만㎡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호 식생 지역 중 소규모로 단절되는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정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연대는 “산림공간정보현황의 입상도 관련 현황을 보면 제주시의 대축척 입상도의 현행화율은 2020년 17.4%이고, 2021년 이후 제주시를 포함한 권역은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과가 현행화율이 낮은 대축척 입상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대축척·소축척 입상도 영급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소축척 입상도에 비해 대축척 입상도가 훨씬 보전지역이 좁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 해명을 달리 말하면 3만㎡ 이상이 되도록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잘라 붙였다는 말이다”라면서 “침대에 맞추기 위해 몸을 잘랐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정형화했다는 결과를 보면 매우 난잡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해당 토지가 보전지역인지 개발지역인지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시가 말하는 정형화된 도시계획이냐”고 물으면서 “시의 해명은 다시

한번 도민을 속이겠다는 의도의 불순한 해명으로 판단된다. 도지사는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가 도민을 기만한 사실이 있다면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논란 사실을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연대에서 주장하는 제주 입상도 현행화율은 실제 입상도 도면의 현행화 비율이 아닌, 도면 현행화에 따른 전국 대비 조사지역(제주 등)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2010년 이후로 전국적으로 현행화 제작되고 있는 입상도 대축척 도면을 적용해 식생 양호 지역을 도출했다”며 “제주시 함덕리 일원에 대해 입상도 5등급 이상 및 식생보전 3등급 이상 도면 등을 토대로 식생 양호 지역을 도출할 시 5000㎡ 내외의 소규모 단절된 구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 용도지역에 맞춰 정형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연속성을 유지코자 했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당근 수확 '구슬땀'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인 2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도 올해 마지막 추경 7조5385억 편성 제출 도의회,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 공무원 증원 조례도 심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5385억원 규모로 편성해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의안 53건을 접수했다가 2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4회 임시회' (12월 10-16일)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인 제주도의 추경안은 7조5385억원으로 짜였다. 이는 기정 예산액(7조6658억원, 1회 추경 포함 올해 본예산)보다 1.66%(1273억원) 감소

한 규모다. 제주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안도 제출됐다. 도교육청 역시 기정 예산액(1조6039억원)보다 2.19%(352억원) 감소한 1조5687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선 제주도 공무원 정원 총수를 기존 6497명에서 1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따라 자격기준 신설 등을 반영한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문인관공에서

###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와 제3종오류

제주 경제가 위기다. 처음 제주 경제의 빨간불을 암시한 지표는 '대출 연체율'이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연체율은 2024년 7월 기준 1.0%로, 전월 대비 0.22%p 증가했고,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국은행 제주본부).

이러한 대출 연체율 증가는 폐업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는 제주지역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숙박업 폐업 수가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 비해 2.7%p나 높은 수치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서 제주 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322만 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한 권  
제주도의회 의원

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했다. 즉 2025년 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투입되고, 어느 산업과 경제영역에 생산을 유발시켜서 지역 외로 그 전년도 동기 대비 8.3%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 비해 2.7%p나 높은 수치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낮은 임금'이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에서 제주 지역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322만 800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이러한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정책학에는 '제3종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정책 설계의 첫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인지한 정책설계로,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수많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 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정책문제의 원인과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멈추고, 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음식·숙박업 폐업 8.3% ↑ 상용근로자 임금 최하위

즉 제주도민은 낮은 임금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감소는 대다수가 종사하는 소상공업,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 감소는 대출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진다. 폐업은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이는 또 다시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제주 경제의 현실을 '제주판 민생 3고(苦)시대'로 지칭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주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주체인 제주도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소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책

이러한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판단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지금의 경제 위기를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정책학에는 '제3종오류'라는 개념이 있다. 정책 설계의 첫 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인데, 문제의 원인을 잘못 인지한 정책설계로, 정책이 집행되더라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수많은 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그 정책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정책문제의 원인과 지역 내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멈추고, 도민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H.K. 한국요양원**

노인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슴으로  
돌봄은 정성으로  
한국요양원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요양원 종사자 일동

**T.064-727-7633**  
제주시 은남2길 39 (연동)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hn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4 11월 14일 히트브랜드 대상 4위  
충진형 귀속형 보청기  
충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푸를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0을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매점